

감각적 사유와 이질적 주체 구성-중편의 탈북여성 재현의 정치

How Media Constitutes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to Disparate Subject

김은준

대전보건대학교 인문교양학부

Eunjune Kim(eunjune@daum.net)

요약

본 연구는 중편채널의 탈북여성 재현의 정치를 논의한다. 중편채널에서 등장하는 탈북여성출연자들은 자본주의 논리에 적극적으로 편승한 연성화된 사적 존재로 구축되며 대중적 시선에 맞추어 소비되는 이질적 주체가 된다. 그녀들은 내부의 경쟁구도와 증언을 통해 희화화되며 이질적 대상으로 강조된다. 또한 그녀들은 그동안 미디어 내에서 이방인들이 존재하던 공간을 보다 저렴한 비용과 쉬운 방식으로 대체하는 B급 출연자로 활용되면서 가부장적 체제에 순응하는 존재로 대상화된다. 중편채널들은 탈북여성출연자들을 지속적으로 이질적 대상으로 규정하여 이야기거리를 생산해냄으로써, 보여지는 대상으로서의 그들에 대해 말하는 자격과 시간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미디어 권력을 확보한다. 결국 탈북여성출연자들은 감각적으로 응시되는 소비의 대상일 뿐 '우리'로 병합될 수 없는 '그들'로 남는다.

■ 중심어 : | 탈북여성 | 중편채널 | 재현 | 타자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about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in general programming channels. In that channel's programs, the women are established as soft private people who got a lift in capitalism aggressively and as disparate subject that have value to be consumed by mass audience. They are caricatured with the testimony and internal competition, be emphasized that heterogeneous object. General programming channels use the women as easy and cheap substitutes for foreigners, also objectifies them to complies with the patriarchal authority. General programming channels are continuously producing a story to deal with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in disparate subject. In this way, they owns the time and qualification to talk to the women as objects to be displayed, to ensure the media power. Ultimately, the female defectors is only a consumption subject that being sensuously staring, so they remain 'other' instead of 'us'.

■ keyword : |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 General Programming Channels | Representation | Others |

I. 서론

2016년 들어 북한이탈주민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

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증가세를 고려하면 국내 거주 탈북자의 수는 올해 10월 내지 11월에 이르면 3만 명을 넘어설 것

* 이 논문은 2014년도 대전보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접수일자 : 2016년 10월 13일

수정일자 : 2016년 11월 5일

심사완료일 : 2016년 11월 29일

교신처 : 김은준, e-mail : eunjune@daum.net

으로 예상된다[1]. 자신이 나고 자란 북한을 탈출해 한국 사회에 진입한 탈북민들은 인종과 언어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며 소수자의 위치에 놓인다. 특히 남과 북이라는 오래된 이념적 대립으로 인해 서로에 대한 인식은 다른 어느 나라 출신들에 비해 낮설고 심리적 거리 역시 멀다. 따라서 한국사회 내에서 탈북민들은 자연스럽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빈곤하고 배제된 소수가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최근 산부인과 의사 출신의 탈북민이 막노동일을 하다 숨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가족을 북한에 두고 온 죄책감과 생활고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2][3].

스피박은 그의 저서를 통해 빈부(경제적 지위), 인종, 성별, 문화적으로 배제된 서발턴(하위주체, subaltern), 이른바 소외계층은 ‘말할 수 없다’고 보았다[4]. 소수의 소외된 계층들은 기능적으로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문화적으로 그들의 말은 들리지 않으며 읽히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도 3만 명에 이르는 탈북민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관심은 찾아보기 힘들다. 사실 다양한 관점은 고사하고 이들을 ‘우리’로 인정하려는 근본적인 시도조차 찾기 어렵다. 탈북민들은 지속적으로 소수의 소외된 계층으로 취급되면서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그리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문화적으로 취약한 소수자 인식은 미디어의 일정한 재현 양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소수자들은 특정한 담론의 대상으로 고안되고 구축될 수 있다[5].

최근 일부 종합편성채널들을 중심으로 탈북민, 특히 탈북여성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제작, 방영되고 있다. 이들은 토크쇼 형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가상결혼생활을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보여주기도 한다. TV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TV 안에서 보여지는 대상으로서 탈북민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어떠한 시선으로 이들을 대하는가를 살펴보면 조금은 다른 해석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탈북여성들

은 탈북과정에서 외상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남한 생활 중 트라우마의 재현으로 나타나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한다[6]. 그러나 미디어가 제시하는 현실은 존재하는 사실들의 고유한 결합이 아니라 이미 특별한 방식으로 규정된 결과이며 따라서 미디어는 현실을 단순히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적극적인 작업이다[7]. 그러므로 종편채널의 탈북민 재현의 정치를 분석하는 것은, 탈북민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사회가 탈북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이들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지, 그것이 지금의 우리 사회와 문화에 어떠한 반성의 지점을 제공하는지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기존연구검토

미디어가 다루는 탈북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유용한 연구들을 생산해 오고 있다. 언론이 탈북자들을 어떠한 프레임에서 다루는 가부터 시작하여 미디어의 탈북자 정체성의 변화를 다룬다거나, 영화에 나타난 탈북자 재현 문제를 비롯해 최근 토크쇼 분석에 이르기까지 그 관심의 폭은 상대적으로 넓다. 대표적인 몇 개의 연구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미디어의 의미 부여 방식에 따라 세계에 대한 이해가 결정된다는 미디어 현실구성 측면에서 볼 때, 언론이 어떠한 프레임으로 관련 사안을 다루는가의 문제는 탈북민에 대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갖는 일반적 이해의 발판이 된다. 그러나 일간신문의 탈북자 프레임을 살펴본 연구[8]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언론들은 탈북자 문제를 반공정책적 시각으로 다루면서 탈북자 개인 프레임, 정치 프레임, 인권 프레임 등 현상 제시적 프레임을 많이 활용하였다. 이런 점에서 언론이 탈북민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방식을 보여주지 못했음을 알게 한다.

이는 영화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2000년대 제작된 탈북 디아스포라 영화들에서 탈북자들은 괴물이나 부적응자로 재현되면서 우리 사회 내의 소수자로서 담론

화되는 경향이 강해진다[9]. 탈북자들이 사회 내에서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에 대해 해당 연구자는 신자유주의적 공세와 탈북자 대량 입국으로 남한 내의 대중들에게 누적된 피로감이 표출된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탈북민에 대한 인식의 기준이 미디어를 비롯해 사회적 체제나 조건 등 다양한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해석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1980년대 냉전시기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월남귀순자’나 ‘귀순용사’로 불리면서 나라 전체의 환영을 받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처우를 제공 받았다. 그러나 냉전 후 인도주의적 시각이 확산되면서 이들은 ‘탈북자’로 호명되면서 정치적 난민보다는 경제적 난민으로 대우받는데, 이처럼 시기에 따라 탈북자 정체성을 구성하는 의미 질서들의 위계가 다르다는 분석[10]도 오늘날 탈북민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점을 제공하고 있다. 탈북자 정체성 구성 요소의 변화는 미디어의 재현 연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탈북여성의 말하기가 어떤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며 어떤 의미를 생산하는가를 분석한 연구[11]에 따르면 탈북여성은 정치적 맥락에서는 ‘망명자’로 나타나면서 자본주의 사회 적응의 맥락에서는 ‘이등시민’으로 재현된다. 이들의 말하기는 남성들의 말 속에서 부차적이거나 주변화되어 나타나고, 보수성향의 미디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반공 메시지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한계를 드러낸다. 이와 더불어 탈북여성들의 사적 기억의 재구성 방식과 의미를 살펴본 연구[12]에서는 텔레비전에 출연한 탈북여성들이 드러낸 과거의 기억들이 개인적 차원의 일상사적 관심거리가 중심을 이루면서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공적 기억과 갈등적 관계에 놓여있음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결국 미디어는 탈북민들의 기억을 특정한 방식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그들을 타자화하고 우리 사회의 지배담론 유지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뉴스 콘텐츠의 탈북자 이미지 재현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그대로 발견된다.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가 다루는 보도 주제와 이미지 재현에 관한 연구[13]에서는 방송사들이 보도를 통해 북한정권에 대한 비판과 남한정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산이라는 대립적 구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정작 탈북민이 겪는

실제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탈북민에 대한 보도 및 재현은 그간 연구들을 통해 확인된 소수자 보도의 행태[14-17]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양상을 보이면서, 탈북민들을 그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과 생활방식에 의해 규정되어 지고 주류 사회의 관심에 의해 말해지는 존재로 구축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III. 연구방법

이러한 인식들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는 종편채널의 탈북여성에 대한 재현이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는가를 분석해 소수자로서의 이들이 어떻게 배제되거나 혹은 활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탈북여성들, 특히 20, 30대의 젊은 여성들은 2016년 9월 기준 전체 탈북민 숫자(29,380명) 중 42.6%(12,557명)를 차지한다[18]. 즉 이들은 종편채널이 주로 활용하는 탈북민 출연자로서 대표성을 갖는 동시에 인구통계학적으로도 최근 탈북민의 주된 연령층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어떤 관점에서 보여지고 말해지는 대상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탈북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그 함의를 논의하는데 적절한 대상이 된다. 이상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 연구문제 1. 종편 프로그램에서 탈북여성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시각적으로 대상화되는가.
- 연구문제 2. 종편 프로그램의 탈북여성 담론형성과정에서 어떤 수사가 선택되고 강조되는가.
- 연구문제 3. 종편 프로그램에서 언어적 비언어적 방식으로 탈북여성에게 가하는 정체성 구성전략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탈북여성이 발화주체로 등장하는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이하 이만갑), TV조선 <만나면 흥하리 모란봉 클럽>(이하 모란봉클럽)을 대상으로 질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현

재 지상과 방송 프로그램 중 탈북자가 지속적으로 출연하는 방송은 없다.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와 TV조선의 경우 이 외에 <잘살아보세(채널A)>, <애정통일남남북녀(TV조선)>에서 탈북여성을 고정 출연자로 활용한다. 그러나 이 두 프로그램의 경우 가상부부의 결혼 이야기를 리얼리티 포맷으로 제작 방영하는 것으로서 토크 위주의 프로그램에 비해 예능적 설정과 장치가 더 두드러지므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두 프로그램은 본 연구가 상호텍스트 양상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6개월간 방송된 분량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만갑> 총 25회(195회부터 219회까지), <모란봉클럽> 총 24회(1회부터 24회까지)의 분량이 선정되었다. 분석은 크게 탈북여성들이 프로그램 안에서 보여지는 방식과 말해지는 방식이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이를 통해 구현되는 특정 방식의 재현의 정치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및 분석의 기준으로 활용한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1. 분석대상 및 분석항목

분석대상	구분	분량(2015.9-2016.2)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195회-219회(총25회)
TV조선 <만나면 흥하리 모란봉 클럽>	1회-24회(총24회)	
분석항목	구분	세부항목
	보여지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방식(오픈닝, 코너, 클로징) 출연자의 배치와 개인들의 외양 자막사용의 특성 음향 및 기타 효과장치의 사용
말해지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의 대상(남한, 북한) 논의 주제(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논의 접근방식(사적/공적, 내적/외적) 사용하는 단어의 특성 진행자와 패널의 역할 	

IV. 분석결과

1. 자본주의 논리에 편승한 연성화된 사적 존재

화려한 풀메이크업에 무릎 길이 스커트 정장을 한 채

1 이만갑의 경우 2011년 12월부터 방송되었지만 모란봉클럽은 2015년 9월 12일 첫 방송을 시작하였다. 이에 분석대상을 시기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2015년 9월 12일 이후 방송된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였다.

모델처럼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탈북여성출연자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정형화된 시각적 이미지를 구축한다. 아름답고 젊은 그녀들의 모습은 자유롭고 적극적이기 보다는 온순하고 소극적이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이야기를 경험하고 전달하는 미지의 통로처럼 인식된다. 그들이 텔레비전 밖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와 별개로 화면 안에 구축된 그녀들의 모습은 예쁘고 젊은 여성으로써, 타인에게 보여지고 해석되는 피동적 존재다.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탈북여성들은 자본주의 논리에 적극적으로 편승한 주체로 그려진다. 두 프로그램 공통적으로 탈북여성들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에 대해 알리며 자신들이 가동하는 정보를 앞세워 최근 불고 있는 북한의 변화에 대해 나름의 진단을 내리기도 한다. 탈북자이면서 여성이고, 경우에 따라 경제적 궁핍에 놓이기 쉬운 이들은 한국 사회 내에서 자연스럽게 소수자의 위치에 놓인다. 하지만 이들은 북한이라는 낯설고 적대적인 대상을 경험했다는 것과 그것을 적극적으로 증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을 위해 ‘말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받은 존재가 되기도 한다. 탈북자, 여성, 궁핍 등 이중 삼중의 중첩적 소수자가 말할 수 있는 기능을 얻었다는 것은 일면 탈북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의 기회균등과 관용의 원칙 작용하는 지점이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 이들은 탈북자 자체로, 즉 고향인 북한을 탈출해 낯선 땅 남한을 선택한 소수자로서 배려받지 못한다. 오히려 이들은 자본주의 논리에 적극적으로 편승한 개인들로 강조되어 다뤄진다. 과거 탈북자들이 자유의 꿈을 찾아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에 도달한 정치적 존재로 환영받거나 이용되었다면, 현재 미디어 속 탈북여성들은 이념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 탈북해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인 주체로서 자유를 경험하는 대상으로 다뤄진다.

이들이 자본주의 체제하의 경제적 주체로 다뤄지는 단면들은 매우 노골적으로 제시된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한국 내에서 자신들이 쌓은 경제적 능력을 언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체제를 설명하면서 그 기준을 정확히 돈에 두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모란봉클럽>에 출연한 한 탈북

여성은 한국에서 주식투자자로 큰돈을 번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이건 자랑이긴 한데, 주식으로 1억 가까이 땀어요...있었던 거는 그때 당시 한 9백만 원 정도”(모란클럽 2016/01/09). 이때 남성 연예인 패널리들의 놀라는 표정이 인서트 되다가, 그녀의 말이 끝나자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이 배경음악으로 퍼진다. 이어 개그맨인 한 남성 패널은 ‘우리 엄마 이후로 최고로 위대한 여자’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또한 그녀들은 북한의 생활상이나 군 체제 등을 설명하면서 ‘북한 육군이 돈이 가장 많이 된다(돈별이가 된다는 의미)’든지, ‘하루라도 밀수를 하지 않으면 내 돈을 남이 가져가는 것 같아서 중독처럼 매일 했다’거나 ‘한국에 와서 좋은 점은 카드를 편하게 쓸 수 있어서 좋다’는 등의 연설을 통해 자신들을 경제적 주체로서 분명히 인지시킨다.

물질적 기준이 탈북여성출연자들에게서 많이 언급되는 것과 더불어, 진행자들 역시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는 ‘대단하다’,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와 같은 찬사를 아낌없이 사용한다. 또한 탈북여성들의 토크 중 등장하는 자막을 보더라도 북한에서 부유하게 살았다는 특별게스트에 대해서는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진정한 북한의 금수저’와 같은 자막을 사용하면서(이만갑 2016/02/28) 이들을 자본주의 체제의 시선에서 이질적으로 신비화해 소비하려는 경향을 쉽게 드러낸다.

탈북여성들이 자본주의 논리에 적극적으로 편승한 존재로 그려짐으로써, 탈북이라는 무거운 주제는 사적인 차원으로 축소되고 탈북여성들은 다루기 쉬우며 가볍고 소소한 담론의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구축된다. 연성화된 사적 존재로 다루어지는 탈북여성들은 스스로를 기꺼이 소비 대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시각적으로 대상화된다. 일례로 <이만갑> 내 한 코너로 다루어진 북한패션쇼(2016/02/14)에서는 탈북여성출연자들이 모델로 등장해 북한의 학생복부터 군복까지 다양한 패션을 선보인다. 그러나 스튜디오에서 이들이 입은 옷들은 공통적으로 치마폭과 허리라인이 좁게 수선되어 몸매를 한 눈에 드러낸다. 한 출연자는 치마로 된 제복을 입은 채 음악에 맞춰 한쪽 다리를 일자로 차올리는 동작을 선보이면서 다른 패널리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이들이 여성으로서 자기 신체의 매력을 어필

하는 방식은 방송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녀들이 연성화된 사적 존재로 담론화되는 방식은 이들이 시각적으로 대상화되는 방식 뿐 아니라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비록 그것이 무거운 주제라 하더라도 개인들의 수다 차원에 머무는 단어들로 채워진다. 이는 그녀들을 가볍고 유희적인 대상으로 변환시키는 대표적 장치가 된다. 예를 들어 김정은의 뚱뚱한 외모를 다룰 때 “요즘은 다이어트 시대인데 혼자 뚱뚱하잖아요.”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례는 탈북여성출연자들이 북한의 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 현실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존재라기보다, 철저히 자본주의 체제에 귀속된 존재로서 우리 사회 내에서 대중적 시선에 맞게 소비되는 이질적 주체에 더욱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2. 내부의 경쟁구도와 증언을 통한 희화화

탈북여성들이 이질적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토크의 상당부분이 탈북여성출연자들을 내부적으로 경쟁시키는 구성이라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북한에서 자신들이 서로 우월한 신분이었다든지, 자신들의 고향이 더 부유한 곳이라든지, 자기가 몸담았던 조직에서 유명한 사람이 더 많이 나왔는지 하는 식으로 내부적인 경쟁에 가담한다. 그러나 한참 논쟁이 고조되다가도 이곳은 그곳과 다르다든지, 돈별이가 더 잘되는 곳은 우리였다는 식의 말로 간단히 정리되거나, 말솜씨가 일방적으로 밀리는 식으로 마무리된다. 경쟁구도에 있는 출연자들의 신분은 대개 상위층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북한에서 좋은 신분 출신에 좋은 대학을 나오고 경제적 윤택함을 누렸던 자들이 다수를 이룬다. 그러나 이들의 이른바 좋은 신분은 그들만의 우월함으로 드러날 뿐, 철저히 호기심 내지는 웃음 위주의 일차원적 대상으로 소비된다.

내부적인 경쟁구도를 통해 이른바 ‘토대가 좋은’ 상위 집단 출신의 출연자는 더욱 부각된다. 일례로 한 여성출연자가 자신의 작은 할아버지가 ‘엄청 높은 위치’에 있다며 이름을 밝히자 사회자가 흥분한 억양으로 그것이 진짜냐고 몇 차례 묻는다. 이때 ‘차마 믿기지 않는 이름’, ‘유체가탈할 정도로 놀라운 사실’이라는 자막이 등

장한다. 이어 다시 그녀의 바스트샷이 등장하고 등 뒤에서 꽃송이 CG가 퍼져나가면서 ‘그 분의 조카손녀가 모란봉클럽에 있다!’, ‘여유로운 미소’ 등의 자막이 다시 등장한다(모란봉클럽 2016/02/06). 이처럼 상위 집단 출신의 출연자가 ‘도대’가 좋은 출신으로 분류된다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른 탈북여성들은 그 안에서 다시금 ‘인민’으로 분류된다. ‘도대’가 좋은 이들이 빨치산 자손, 당 간부의 가족, 혹은 일류대학 출신임을 자랑하는 동안 나머지 출연자들은 “김일성종합대 나온 여자 여기서 처음 뵙니다.”와 같은 표현을 통해 서로 다른 내부의 위상을 외부의 관찰자들, 이를테면 남한 연예인 남성 패널이나 시청자들에게 확인시켜준다.

이들이 출신성분 이상으로 서로를 구별짓는 또 다른 기준은 경제적 배경이다. 이만갑 한 회차(2016/02/28)에서는 특별게스트를 소개하면서 여성진행자가 “아버지는 ○○시 대표 무역회사 소장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대기업 부회장 수준이고요. 타고 다니던 외제차만 두 대고, 칠보산, 백두산, 묘향산, 평양까지도 여행을 다녔다는 진정한 금수저 탈북미녀 이△△씨 모셨습니다.”와 같은 멘트로 그녀를 설명한다. 특별게스트가 스튜디오 중앙으로 걸어 나오자 남성 패널들은 “예쁘다”를 연발하고, “금수저라고 하니 등장하는 걸음걸이부터 달라 보이는”이라는 자막이 등장한다. 한 남성 패널은 그녀에게 “북한의 금수저라고 하니가 되게 신비스러워 보이는 건 있어요.”라며 호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내부의 경쟁 내지 구별이 심화되는 동안, 이들을 더 이상 신비화하지 않고 소비적 대상으로 정리해내는 것은 진행자들의 몫이 된다. 한 탈북여성출연자가 “저희는 조상대대로 부자였고 어머니 쪽이 더 부자였습니다. 자유롭게 소고기를 먹었고 과일도 한 톨씩 창고에 넣고 먹었어요.”라고 하자 두 명의 사회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편견이에요. 정치적 이유 때문에 오신 분들도 많고, 경제적 이유가 있어서나 자유가 그리워서 오신 사람도 있고, 정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러게요 똑같네요.” 이처럼 진행자들의 입을 빌어 탈북민들이 우리와 같은 존재임이 언급될 때, 그 기본 맥락이 경제적 부유함에 있다는 것은 결국 탈북여성출연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

이 탈북을 경험한 그들 중심으로 맞춰지지 못하고, 온전히 우리의 눈높이와 방향에서 그들을 그려내고 해석하는, 즉 우리가 쉽게 소비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들을 다룬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의 시선에서 탈북여성출연자들은 지속적으로 이질적 대상이라는 점이 강조되는데, 이러한 또 하나의 대표적인 방식은 증언을 통한 회화화라 할 수 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출연자들의 토크가 주된 진행 방식이고 프로그램의 흐름을 이끌어어나가는 존재 역시 철저하게 탈북여성들이다. 이들의 이야기는 남한 진행자들이나 패널들에 의해 적절하게 맺고 끊어지면서 대부분의 경우 웃음으로 끝난다. 이 과정에서 탈북여성들은 남한 사회를 이해하지 못해 실수를 저지른 에피소드를 늘어놓는다. 예를 들어 한 출연자가 “나는 축의금을 내는 줄 모르고, 쌀 2.5키로, 메주콩 3키로를 거기다 냈지 뭐니까.”라는 식으로 자신의 어리숙함을 이야기하면 모든 출연자가 웃음을 터뜨리다 마무리되면서 탈북여성들은 남한 사회에 온전히 녹아들지 못하는 어리숙하고 낮은 존재라는 점이 현격화되는 식이다. 나아가 출연자들은 ‘북한에 살 때 이밥에 고기가 먹기 싫어서 부모와 늘 싸웠다’거나, ‘부자여서 농촌동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며 고난의 행군이 낙원의 행군이었던’ 등 유아기적 퇴행에 가까워 보이는 자랑을 경쟁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이런 과정은 탈북자의 행위나 말을 신기함 내지 후진적 세계에나 있을 법한 것으로 치부하게 만든다.

탈북자의 행위 자체를 회화화의 대상으로 삼는 동안, 그리고 탈북여성출연자들의 내부적 경쟁이 심화되는 동안 이를 관람하는 자들은 문명의 세계에 머물고 있는 남한 남성들이다. 그녀들이 소비의 대상으로 자신을 구축해 나갈 때, 남성 연예인 패널들은 탈북여성들을 남한 사회에서 경제성 있는 존재로 확인하고 인정해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탈북여성출연자들과 한국남성 패널들의 관계 속에서 가부장적 젠더 질서가 가시적으로 구현된다는 점은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니다. 출연자들은 남남북녀의 구도 속에서 지배 대 피지배, 문명 대 야만, 일상 대 신비와 같은 차원으로 이분화 되면서 탈북여성출연자들을 신기함의 대상이자 이질적인 존재로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 다음 내지

차이에 기반한 이분법적 대상화 전략을 통해 탈북여성들은 남한 사회에서 응시될만한 가치를 얻는 존재가 된다. 이들이 이질적 대상으로 구축되는 방식은 구별을 극단적으로 양극화하여 현격한 분할을 함으로써 어느 한 쪽을 위압하는 사고방식[19]에 다름 아니다.

3. 가부장 질서에 순응하는 B급 이방인

탈북여성출연자들은 이질적 대상으로 구축됨과 동시에, 우리와 외모와 언어가 다른 이른바 ‘타인들’이 존재하던 공간을 보다 저렴한 비용과 쉬운 방식으로 대체하는 B급 이방인 출연자로 규정된다. 이러한 장치는 포맷 자체가 드러내는 한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간 외국인들이 방송에 등장했던 주된 방식은 집단토크쇼 프로그램들로, 대표적으로 <미녀들의수다(KBS)>, <비정상회담(JTBC)> 같은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미녀들의수다>는 출연자들이 계단식으로 배치되어 있으면서 토크를 이어갔으며, <비정상회담>은 좌우로 긴 ㄷ자 테이블에 각 출연자들이 마주보고 앉아 토크를 진행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두 프로그램은 출연자의 배치를 비롯해 전체적인 세트 구성과 진행방식이 기존 타방송사 프로그램 구성방식에 의존하고 있는데, <모란봉클럽>의 경우 <비정상회담>을, <이만갑>의 경우 <미녀들의수다>가 보여준 스튜디오 구성을 그대로 본 따고 있다. 이런 구조 안에서 탈북여성출연자들은 ‘독한 사연과 흥미로운 시선’을 가진 이들로 표현되면서², 피부색과 언어가 다른 이방인들이 차지하던 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대체하는 존재로 상징된다. 이들은 우리와 같은 맥락의 동포로 그려지지 않으며 이방인의 역할을 손쉽게 담당해주는 타인으로서 소비된다.

또한 탈북여성들은 타인이면서 가부장적 체제에 순응하는 존재로 대상화되는데, 이는 프로그램 간 상호텍스트 차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직접적 분석대상이 아니지만, TV조선과 채널A는 탈북여성과 남한의 남성연예인이 가상 부부로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각각 제작, 방영하고 있다. <애정통일남북녀(TV

조선)>, <잘살아보세(채널A)>라는 제목의 해당 프로그램들은 탈북여성과 남한노총각의 가상 결혼생활을 보여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써, <모란봉클럽>과 <이만갑>의 탈북여성출연자들이 등장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두 채널 모두 가상 부부는 북한 출신의 젊은 여성과 남한의 성공한 노총각 연예인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은 북한 출신 어린 부인의 한국사회 적응기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따라서 그녀들은 남편, 어른, 한국이라는 곳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규정된다.

남한의 남편은 삶의 연륜과 경제력을 갖추고 사회적 성공을 거둔 이들로서 북한 출신의 어린 부인을 보듬는 역할로 그려진다. 반면, 탈북여성들은 남한 사회에 익숙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요리가 서툴고 위로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린 존재로 다뤄진다. 그녀들이 칭찬을 받는 경우는 어른을 공경하거나 남편에게 애교를 부리거나 순응하는 모습을 보일 때다. 이처럼 가부장적 질서에 순종하는 여성상으로 다뤄지는 그녀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은 <모란봉클럽>이나 <이만갑> 내에서 적극적으로 차용된다. 1차적으로는 가상부부로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언급하는 방식(‘요즘 신혼재미가 쏠쏠한 □□씨’ 라는 식)이지만 2차적으로는 가부장적 질서에 순응하는 젊은 여성으로서의 그들을 또 다른 순응적 주체로 더욱 익숙하게 다루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잘살아보세>에 출연한 탈북여성이 <모란봉클럽>에서도 요리 솜씨에 대해 놀림을 받고 구구단을 제대로 못 외우는 어리숙한 모습으로 재구축되는 식이다.

탈북여성들이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보여지는’ 존재라는 점은 그녀들의 여성성에 대한 응시에서도 확인된다. 프로그램 홈페이지 시청소감에서도 그녀들은 살찌는 안 되며, 미모가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다뤄진다. 일례로 <모란봉클럽> 시청자게시판에는 ‘한**씨. 몸 관리 하셔야겠어요. 너무 여유가 넘치셔서(2015/12/11)’, ‘박**씨 처음 봤을 때는 그냥 포도주였지만 지금은 꼭 최소 50년 이상 숙성된 아주 고급이고 값이 비싼 와인 같은 그런 숙성된 성숙함이 보이더라고요(2016/03/29)’와 같이 성적 응시의 대상으로 언급된다.

결국 이들은 프로그램 구조적 차원에서도 이방인의 자리를 저렴하게 대체할 수 있는 B급 출연자이면서 남

² 모란봉클럽 홈페이지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현재 남한에서 가장 독한 사연과 가장 흥미로운 시선을 가지고 있는 탈북 미남 미녀들의 버라이어티한 한반도표류기가 토크로 꽃피는 프로그램’으로 소개하고 있다(<http://www.tvchosun.com>).

한의 남성이 주도하는 가부장적 질서에 순응하는 젊은 여성으로서, 감각적으로 응시되고 사유되는 소비의 대상일 뿐 ‘우리’로 병합될 수 없는 ‘그들’로 남는다.

V. 결론

국내 탈북자 집단은 ‘소수자’로서 남한 사회의 정부 및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차별적 대우와 자존감 훼손, 인권 침해 사태를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0]. 이들은 다른 국가나 지역 출신의 이방인들이 겪는 차별을 넘어 민족적 문제와 이념 대립에서 비롯되는 고착화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하여 다각적인 불평등의 문제들에 노출되면서 정체성의 훼손을 겪는다. 그러므로 이들은 탈북 이후에도 남한 사회에서 제대로 된 정착에 실패하거나 혹은 고립되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미디어는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을 균형있게 제시하고 통합을 추구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종편채널은 오히려 탈북자들을 감각적인 대상으로 소비하면서 이질적 주제로 구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일조하고 있다. 종편채널은 출연자로서 이들을 활용하지만 북한 사회에 대한 정서적 이해의 폭을 넓히기 보다는 탈북여성들을 온전히 영리확보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이들을 경제적으로 종속된 아웃사이더이자 남한, 그리고 남성의 시선에서 인정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사용한다. 이는 남과 북의 유사성보다는 이질성에, 평등하고 다양함을 인정하는 시선이 아닌 우월성에 기반한 위계를 공고히 구축하는데 이바지한다. 결국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배제된 탈북여성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목소리로 말할 수 없으며 오히려 중첩된 차원의 소수자로 남게 될 뿐이다. 탈북여성출연자들을 소비재 이상으로 다루지 않는 미디어의 행태는 이들을 신기하고 다른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틀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종편채널은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여 흥미위주의 이야기거리를 생산해냄으로써, 보여지는 대상으로서의 그들에 대해 말하는 자격과 시간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미디어 권력을 확보한다.

더불어 탈북여성출연자들은 이러한 미디어 프레임에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끼워 맞추으로써 화면 속 자신들

의 가치를 생산해낸다. 그녀들이 텔레비전 화면 안에서 소비될 가치를 얻는 것은, 예쁜 얼굴에 젊고 아름다운 신체를 가진 여성이면서 자본주의 체제에 적극적으로 편승한 경제적 주체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내보임으로써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그녀들이 자신들의 다름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나름의 생산성을 보여주는 시도들은, 타 프로그램을 차용한 포맷의 한계와 어우러지면서 탈북여성출연자들이 일면 편리하고 저렴하게 대중 소비될 수 있는 요건을 형성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그들은 남과 북의 맥락에서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남한 안에서, 남성중심의 우월주의적 시각에 의하여, 자본주의 종속적 주체로서 감각적으로 편리한 방식으로 소비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색적 소비의 대상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운 탈정치화된 이방인이 된다.

표 2. 분석결과정리

구분	내용
탈북여성 출연자 유형	· 경제력을 인정받는 여성 vs 실수와 부적응의 여성 · 토대가 좋은 금수저 vs 일반 인민 · 남성의 돌봄 하에 있는 어리고 약한 여성 · 성적 응시의 대상이 되는 젊은 여성
보여지는 방식	· 자본주의 논리에 적극적으로 편승한 주체 · 남과 북의 유사성보다 이질성이 강조된 구조 · 남한 내 가부장적 질서에 순응하는 젊은 여성 · 외국인의 자리를 저렴하게 대체하는 B급 이방인
말해지는 방식	· 물질적, 경제적 기준이 중심이 된 논의형성 · 탈북여성들 내부의 경쟁구도에 집중 · 평등과 다양함보다 상하위계를 재생산하는 논의진행 · 감정의 차원에 집중된 호기심과 웃음을 주는 존재로 자신들을 소비
· 종편채널은 탈북여성들을 탈정치화된 이색적 소비 대상으로 그려내면서 편협한 인식의 프레임을 제공함 · 탈북민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감각적 사유만을 위한 이질적 주체로서 구성, 소비됨 ·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배제된 탈북민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중첩된 소수자로 남게 됨	

타인은 언제나 낮설다. 그러나 그 타인을 구성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시선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탈북여성 인식의 편협한 프레임을 벗어나 그들을 화면 안에 존재하는 이질적 대상이 아닌, 공동체의 다양한 일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현실적인 노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디어의 성찰이 뒷받침된 소수자 재현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적 시선 대신, 가십 위주의 편파적 재현이나 상징적 폭력 대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가 갖든 보편적이고 균형적인 시선에서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

을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미디어는 자신의 힘과 그 효과가 갖는 엄중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사회적 책무의 차원으로 전환시켜 건강한 방식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미디어는 사회의 특정한 시선들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가장 큰 권력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가 소수자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관심이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탈북자, 특히 탈북여성들의 미디어 속 재현 양상 속에서 이들에게 가해지는 특정 방식의 재현의 정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상기 기술한 내용들은 본 연구가 확인한 소정의 결과지만, 본 연구가 탐색적 성격을 갖는 탓에 현실적 수준의 대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점과 실제 수용자들의 인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다루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수용의 차원을 중심으로 실질적 수준에서 탈북자 재현에 따른 인식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후속연구들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1] 연합뉴스, 2016년 8월 1일자.
 [2] JTBC 뉴스, 2016년 8월 19일자.
 [3] 연합뉴스, 2015년 9월 26일자.
 [4] G. C. Spivak,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그린비, 2013.
 [5] M. Foucault, *정신의학의 권력*, 난장, 2014.
 [6] 김정현, “탈북여성들의 남한사회에서의 차별 경험과 트라우마 경험의 재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5호, pp.117-131, 2014.
 [7] S. Hall, *The Spectacle of the Other*, in S. Hall, (Ed). *Representation: Cultural Representations and Signifying Practices*, Sage, pp.225-290, 1997.
 [8] 이용철, *탈북자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2006.
 [9] 이명자, “신자유주의 시대 남한영화에 재현된 탈북이주민과 그 문화적 함의,” 통일문제연구, 제25권, 제2호, pp.95-128, 2013.
 [10] 오원환, “방송 뉴스의 탈북자 재현과 그 정체성 구성: 지상과 3사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통일과방송, 창간호, pp.71-108, 2013.

[11] 이선민, “탈북여성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텔레비전 토크쇼 <이제 만나러 갑니다>(채널A)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젠더&문화, 제29권, 제2호, pp.75-115, 2014.
 [12] 태지호, 황인성, “텔레비전 토크쇼 <이제 만나러 갑니다>(채널A)의 탈북여성들의 사적 기억 재구성 방식과 그 의미에 대하여,” 한국언론정보학보, 제60호, pp.104-124, 2012.
 [13] 최진봉, “텔레비전 뉴스 콘텐츠에 나타난 탈북민의 이미지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3호, pp.403-414, 2015.
 [14] 한건수, “타자만들기: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의 재현,” 비교문화연구, 제9권, 제2호, pp.157-193, 2003.
 [15] 정근식, “차별 또는 배제의 정치와 ‘소수자’의 사회사 재구성,” 경제와사회, 제100호, pp.183-208, 2013.
 [16] 권금상, “대중매체가 생산하는 ‘이주여성’ 재현의 사회적 의미: 결혼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 TV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제6권, 제2호, pp.39-81, 2013.
 [17] 박지훈, 이진, “성소수자에 대한 미디어의 시선: 텔레비전에 나타난 홍석천과 하리수의 이미지 유형을 중심으로,” 미디어젠더&문화, 제28권, pp.5-42, 2013.
 [18] <http://www.unikotra.go.kr/>
 [19] E. W. Said,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2015.
 [20] 선우현, “한국인 속의 한국인 이방인: 국내 탈북자 집단의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제64권, pp.5-28, 2012.

저 자 소 개

김 은 준(Eunjune Kim)

정회원



- 2012년 2월 : 충남대학교 언론학 박사
- 2012년 3월 : 대전보건대학교 인문교양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문화연구, 미디어콘텐츠